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



제목 : 규민이와 놀은 날

아침에 밥을 먹고, 자전거를 타러 동네 놀이터에 갔다.  
 동생과 신나게 놀다가 친구 규민이를 만났다. 규민이  
 도 자전거를 타고 나오니 동생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,  
 규민이와 나는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. 정말  
 바람이 상쾌해서 너무 좋았다. 규민이의 자전거를  
 우리 동생이 한번 타 보기도 했다. 규민이의 아기 동생을  
 만났는데, 진짜 귀여웠다. 미끄럼틀도 타며 신나게 놀  
 았다. 정말 재밌고, 즐거운 하루였다.